

# 나 너 좋아해

신순재 글·차정인 그림

아름다운 책, 따뜻한 책,  
두고두고 보고 싶은 책  
길벗어린이가 만들어 갑니다.

길벗어린이

www.gilbut.co.kr





길벗어린이

www.gilbutkid.co.kr



나 너 좋아해

길벗어린이

[www.gilbutkid.co.kr](http://www.gilbutkid.co.kr)

신순재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문예창작을 공부했습니다. 지금은 어린이책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쓴 책으로 《밤을 지키는 사원들》, 《일세구 좋다! 반소리》, 《하네기 싫어》, 《세 발 두꺼비와 황금 동전》, 《지렁이 울음소리를 들어 봐!》, 《거짓말이 참박 달라붙었어》, 《발귀방귀 나가신다》, 《아주 바쁜 입》 등이 있습니다.

차정인은 이화여자대학교와 같은 대학원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영국 런던 국립예술대학에서 북아트를 공부했습니다. 지금은 어린이책에 그림을 그리고 아티스트 북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하 모리였구나!》, 《오리 할머니와 말하는 말》, 《우리 집은 정글》, 《우리 아빠가 최고야!》, 《달이네 주석빛이》, 《목자 목자 뽕 뽕지》 등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티스트 북 《끈 한 가닥 A Piece of String》을 비롯한 여러 작품이 영국의 빅토리아 앨버트 미술관, 테이트 갤러리 등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 나 너 좋아해

신순재 글 · 차정인 그림

길벗어린이

www.gilbutkid.co.kr



길벗어린이





엄마를 처음 보았을 때,  
아빠는 사랑에 빠져 버렸지.  
아빠는 생각했어,  
“어떻게 내 마음을 전할까?”





길벗어린이

www.gilbutkid.com

피라미 한 마리 찰랑찰랑 헤엄치고 있어서 물었어.

“어떻게 내 마음을 전할까?”

“나처럼 몸 빛깔을 바꾸고 말해 봐.

나 너 좋아해!”





“난 몸 빛깔이 변하지 않는걸.  
어떻게 내 마음을 전할까?”

공작 한 마리 자박자박 걸어와 말했어.  
“나처럼 꼬리 날개를 펼치며 말해 봐.  
나 너 좋아해!”



길벗어린이

www.gilbuthid.com





“난 꼬리 날개는커녕 꼬리도 없는걸.  
어떻게 내 마음을 전할까?”

말 한 마리 두가닥뚜가닥 달려와 말하겠지.  
“나처럼 잇몸을 보이며 말해 봐.  
나 너 좋아해!”







“난 잇몸도 없는걸.

어떻게 내 마음을 전할까?”

굴뚝새 한 마리 포로롱 날아와 말했어.

“나처럼 둥지를 지어 놓고 말해 봐.

나 너 좋아해!”



길벗

www.gilbu





“난 둥지를 지을 줄 모르는걸.  
어떻게 내 마음을 전할까?”

물총새 한 마리 찹봉 물고기를 잡으며 말했어.  
“나처럼 물고기를 선물하며 말해 봐.  
나 너 좋아해!”



길벗어린이

www.gilbutkid.co.kr





“난 물고기를 잡을 줄 모르는걸.  
어떻게 내 마음을 전할까?”

까만 하늘에선 반딧불이가 공지 불을 깜박깜박.  
먼 데 있는 짝을 불러 공지 불을 깜박깜박.  
그 불빛이 부러워서 한숨도 못 잤어.

길벗어린이

www.gilbuteid.co.kr





귀뚜라미 한 마리 푸르르르 짹을 불렀어.

“푸르르 푸르르, 나 너 좋아해!

나처럼 노래라도 부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푸르르 노랫소리에, 포르르 눈물 한 방울.

“가만, 노래라고?”

어린이

atkid.co.kr







아빠는 연잎 위를 폴짝 뛰고,  
폴짝 폴짝 뛰고,  
폴짝 폴짝 폴짝 뛰어서  
엄마한테 착 다가갔어.





아빠는 턱주머니를 볼록 부풀리고,  
볼록 볼록 부풀리고,  
볼록 볼록 볼록 부풀려서  
노래를 불렀지.

구름은 구름끼리 나 너 좋아해!  
개루개루 개루개루 나 너 좋아해!  
나비는 나비끼리 나 너 좋아해!  
나랑 결혼해 줄래?

www.gulbutkid.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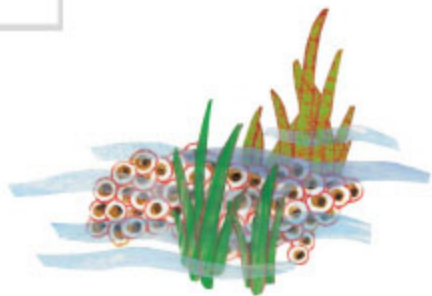
엄마는 아빠 노랫소리에 훌쩍 반했대.

하루,

이틀,

몇 날이 지나

올망졸망 아기들이 태어났지.





그게 바로 너희들이야.







길벗어린이 과학그림책 03

## 나 너 좋아해

신순재 글 · 차정민 그림

첫판 1쇄 마넌날 · 2001년 12월 5일 | 2판 1쇄 마넌날 · 2014년 10월 25일

마넌이 · 이호군 | 파스곳 · 길벗어린이(주)

주소 · 413-120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4-12

등록번호 · 제 10-1227 호 | 등록일자 · 1995년 11월 8일

대표전화 · 031-956-3251 | 팩스 · 031-956-3271

홈페이지 · [www.gilbutkid.co.kr](http://www.gilbutkid.co.kr)

ISBN 978-89-5582-386-4 77400, 978-89-5582-113-0(세트)

글 ① 신순재 2001, 그림 ② 차정민 2001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저작권자의 길벗어린이(주)의 허락 없이는 이 책의 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

이 책의 작업출판권은 출판사도서목록(CPI)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l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PI 제1번호 : CP2013001594)

# 길벗어린이

[www.gilbutkid.co.kr](http://www.gilbutkid.co.kr)



길벗어린이 과학그림책은 세계와 나의 관계를

과학적인 눈으로 바라보도록 돕는 그림책으로,

밝히는 호기심을 지닌 어린이에게 발견하는 즐거움을 줍니다.

- 01 우리 몸      우리 몸의 구멍    허문미 글 | 이혜라 그림
- 02 동물과 식물    사잇은 무엇이 되고 싶을까?    김순현 글 | 김민정 그림
- 03 동물과 식물    나 너 좋아해    신순재 글 | 차정민 그림
- 04 별과와 빛      그림자는 내 친구    박형선 글 | 아주치 그림
- 05 우리 지구      물은 어디서 왔을까?    신동영 글 | 남주원 그림
- 06 동물과 식물    살았나? 죽었나?    김경주 글 | 모충호 그림


•길벗어린이 과학그림책 시리즈는 계속 출간됩니다.

# 길벗어린이

www.gilbutei.co.kr







개구리가 사랑에 빠졌어!

개구리 같은 동물들은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전할까요?

길벗어린이

www.gilbutkid.co.kr

아름다운 책, 따뜻한 책,  
두고두고 보고 싶은 책  
길벗어린이가 만들어 갑니다.



ISBN 978-89-5582-186-4  
ISBN 978-89-5582-113-0(세트)  
₩ 11,000원